

朝鮮時代の衣生活規範에 關한 研究

—文獻을 中心으로—

玄 眞 淑 · 閔 吉 子

國民大學校 師範大學 家政科

A Study of the Standard of Costume life in the Chosen Dynasty Period

—Focus on Literature—

Jin Sook Hyun · Gil Ja Min

Dep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Education, Kook Min University

(1985. 6. 7 접수)

Abstr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at all the people in our country were taught the way of braiding the hair and hatting in the first year of 'Tangun' (the founding father of the Korean nation) and that the discipline between sovereign and subject, man and woman, and the standard of food, drink and dwelling were originated from that year, it seems that all the people in our country had lived with keeping a certain standard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and with maintaining the order in life from ancient times. So, our country have been called "the Eastern Land of Courtesy" and also regarded as "the country of the true gentleman" which was characterized as the custom of a humane, and as the country that had the immortality since a benevolent person lived to a great age. Thus, all the people in our country have lived with keeping and maintaining a certain standard of all aspects in life, and the philosophy in life that we have today was established by the influences of our characteristic thought,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and Christianity, especially the life style in the Chosun Dynasty Period have strong influence on our today life.

Thus, the contents concerned with the standard of custume life among those of all life in the Chosun Dynasty Period was studied, and clothes itself is unable to give expression to its ends but when the relationship that is, the inter-harmony among clothes, the body which will be dressed in, and the inherent psyche in that body is formed, then the ends, the complete beauty will be expressed. Though there were many studies dealt with clothes itself, no one was concerned with the all kinds of standard in activities that the dresser should keep, s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at as above.

The literature search is used as the research method. The eight books, 'Noneo' (the Analects of Confucius), 'Yeogi' (the Book of Courtesy), 'Sohak' (the book of Precepts for children), 'Yeosaseo' (the Women's Four Books), 'Sasojeol' (Korean Scholars' Minor Principles)

'Eonhaenaehoon'(Private Moral Instructions for Women), 'Woo-am seonsaeng kyenyeoseo'(Master Woo-am's Cautions for Girls) and 'Kyoobangkasa'(the Lyric Lines of the Boudoir) that had influenced the whole field of life in the Chosun Dynasty Period are analyzed, selected and finally arranged for studying the foundation of culture of the clothing and for helping to that culture in modern and future lif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standard of the clothing life in the Chosun Dynasty Period had deeply rooted in the teaching of confucianism, but also had been influenced by the custom which rooted in our people.
2. There is the emphasis upon the trinity among mind, clothes and activities in the clothing life.
3. The clothing and hat have to be dressed symmetrically in full of all required elements.
4. There is the harmony between the clothing with hat and environments or surroundings.
5. The true elegance in the clothing life will be realized not by the exterior outfit but by the interior outfit with the attitude of chastity.

In conclusion, as the material of clothing life in the Chosun Dynasty Period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mplicity, the cleanliness, the elegance and the refinement, our clothing life is to be mastered with the simplicity, the cleanliness and the elegance in that life and with the harmony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I. 緒 論

우리나라는 檀君元년에 백성에게 머리당고 冠쓰는 법을 가르쳤고 君臣, 男女, 飲食, 住居의 制度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¹⁾. 는 기록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上古時代부터 衣, 食, 住에 一定한 規範이 있어 그것을 지키면서 生活秩序를 維持시켜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옛부터 東方禮儀之國이라 하였으며, 또한 君子國으로 風俗이 어질고 仁者는 오래살아 君子國은 不死之國이라²⁾하였다. 이와같은 歷史를 지닌 民族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生活倫理는 우리의 固有思想과 儒, 佛, 道教, 基督教의 영향이 자기 繼承, 重疊되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특히 朝鮮時代의 生活體系는 오늘날 우리의 生活속에 斷絶되지 않고 이어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本考에서는 朝鮮時代의 各種生活規範중 衣生活規範에 관해 研究하였는데, 衣服이라는 것은 自體로만 모든 目的이 表出되는 것이 아니라 人間과의 關係 즉 衣服과 그 衣服을 입은 人體와 그 人體에 內在된 心性이 相互調和를 이루었을때 비로소 完成된 美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衣服自體에 관한 研究는 많았지만 그 衣服을 입는 者가 취해야할 各種行動規範에 관한 研究가 全無하였으므로 本 研究를

착수하였다.

研究方法은 朝鮮時代의 生活全般에 영향을 주었던 論語, 禮記, 小學, 女四書, 士小節, 諺解內訓, 尤庵先生戒女書, 閨房歌辭等を 中心으로 拔萃, 分析, 整理하여 衣服着用文化의 밑바탕을 알아보고 現代와 未來의 衣生活行動文化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諸文獻에 記錄된 衣生活規範

1. 衣服着用에 따른 規範

「閨房歌辭」³⁾에 「여러날리 듣다헌도 옷을 벗고 나지 말라. 힘질이 버셔나면 나무스군 고이 하다.」「士小節」⁴⁾에도 「한가히 있을때는 아무리 덤더라도 半臂만 입지 말고, 科場에서는 아무리 피로하더라도 道袍를 벗지 말라. 아무리 날씨가 춥더라도 짧은 저고리를 위에 끼어 입지 말고, 몹시 더운 날씨가 옷깃을 열지 말고, 짧은저삼만을 입지도 말며 바지끝을 걷어올리지도 말라.」 하였고 「禮記」⁵⁾에 「어깨를 드러내고 갓을 벗는 것은 꾸밈을 버리는 일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다.」고 하여 아무리 덥거나 춥거나 피로하더라도 꾸밈을 廢하지 말라 하였으며 또한 「道袍에는 반드시 겹에 입는 것이 있고 홑으로 입지 않는다. 옷은 반드시 치마가 있으니 이것을 한벌이라 한다.」⁶⁾하여 衣服은 반드시 着用構成要素들을 갖추어 입도록 하였다.

「士小節」¹⁷⁾에 「笠子를 앞으로 꼭 숙여쓰고 쟁밀으로 남의 기색을 훑겨 살피는 것은 섣뻑하고吉한氣相이 아니다.笠子를 뒤쳐쓰지도 말고, 끈을 움켜잡아 매지도 말고, 훑어 매지도 말고, 귀에 내려오게 매지도 말라.笠子에竹縷를 드리우는 것은簡潔하다.」 「옷은 동정이 접히지 않게 입고, 바지는 끈이 늘어뜨려지지 않게 입어야 한다.」 「버선등을 꿰매는 것은 틀어지게 해서는 안되고, 바지 끝을 묶는 데님은 느슨하게 해서는 안되고, 매쳐 허리띠를 땔 때는 높아도 가슴위로 올려 매서는 안되고 낮아도 배꼽까지 내려매서는 안되며 줄라매지도 말고 늦춰매지도 말며, 맺는 부분은 반드시 고를 내고(同心) 두가닥 길이가 같게하라.幅巾의 띠는 반드시 두가닥으로 하되 두가닥이 들쭉날쭉하게 말라.」 「소매와 옷자락이 쓸데없이 길면 일하는데 크게 방해가 된다.」 하여衣冠着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신을 신을 때는 신짜이 뒤섞여 있더라도 반드시自己신을 신고 양쪽발에 색깔이 자기 다른 신을 신지 말라 하였고¹⁸⁾, 또 뒤축을 꺾어 신지도 말라 하였다¹⁹⁾. 또한 「閨房歌辭」¹⁰⁾에 「치마모리 하여지고 빈혀싸져 키가문다. 허리의 어다두고 불근허리 드리니느」 「이우절 왕녀홀제 옷귀를 배게 하여 솟옷실 나게 말고」 이상은衣冠을 바르게 쓰고, 입고, 신는法을 가르치고 있는 旬節인데 또한 「남이 가진 公服과 軍裝을 白身으로 공연히 입어보아서는 안된다.」¹¹⁾ 하였듯이 남의 衣服을 공연히 입어보는 行動 또한 살가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士小節」¹²⁾에 「좁은 옷, 狹窄한 버선, 은으로 裝飾한 칼집, 비단바지에 구렛나루를 쓰다듬어서 잘 기르고, 눈썹을 죽죽계로 꺾게 다듬고서 걸음을 걸고, 言笑를 잘 하며, 약간의 才想를 갖고 先輩들을 피하는 者는 바로 人妖인 것이다.」 이 旬節은 아름다움은 꾸며낼려고 할 때 오히려 추함이 나타난다는 뜻이 內在된 旬節인데 「論語」¹³⁾에 「좋은 말이나 좋은 낱을 꾸미는 者는 仁이 적으니라.」 즉 모든 假面과 外飾은 내용이 성실치 못한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며 「詩經」¹⁴⁾에 「비단 옷위에 삼베옷을 입었도다.」 즉 비단의 아름다운 文采를 삼베옷을 입고 가리워도 그 아름다움은 自然히 밖으로 드러나듯이 남에게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고 또 보일려고 하지 않아도 그 속에 內在된 아름다움은 自然히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상 衣服은 着用構成要素들을 반드시 갖추어 整齊해 입어서 그 모양이나 차림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또한 걸음으로 드러내보일려는 차림새 보다는 감추는 듯한 차림새에 그 것이 더 깃들여 있음도 示唆해

주고 있다.

2. 行動規範

「諺解內訓」¹⁵⁾, 「小學」¹⁶⁾, 「禮記」¹⁷⁾에 「장차 자리에 가 앉으려고 할 때에는 부끄러워 하는 얼굴로 당황해하는 態度를 하지 말 것이며 두손으로 下衣를 그체맨 곳이 땅에서 한자쯤 뜨게 치켜들어야 한다. 옷자락이 필력은 일이 없어야 하며 발은 미끄러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여 항상 恭敬하는 마음과 조심하는 態度를 잃지 않아야 됨을 가르치고 있다.

「女四書」¹⁸⁾에 「行動함에 있어서 머리를 여겨저기 뒤돌아 보지말며, 말할때 입술을 들추거나 울리지 말며, 앉을때 무릎을 움직이지 말며, 설때 치마를 흔들지 말며, 기뻐도 너무 크게 웃지 말며, 화가나도 소리를 높이지 내지 말며……」 또 「諺解內訓」¹⁹⁾에는 「오고 가는 모습이 엄숙하고 整齊해야 하며 걸음걸이와 발디딤을 조심하며 빠른 걸음이 없으며……」라고 하였다. 또한 「士小節」²⁰⁾에 남이 보는 앞에서 버선을 벗지도 말고……」 「도보로 큰길을 갈 때에는 반드시 가장자리로 가라. 팔리 걸지도 말고, 너무 천천히 걸지도 말고, 팔뚝을 흔들지도 말고, 소매를 드리우지도 말고, 등을 굽히지도 말고, 가슴을 푹 튀어 나오게도 말고,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무엇을 가리키지도 말고, 좌우로 훑듯 훑듯 보지도 말고, 느리게 신을 끌어 뒤축을 흔들지도 말고, 발을 무질서하게 오르내지 말고, 머리를 위아래로 까물지 말며」라고 하였으며 또 「치마를 들러 입을 때 거센바람소리 내지 말며, 다닐때 치마를 흔들지 말라.」²¹⁾ 「앉을 때는 반드시 옷깃을 整齊하고, 설 때는 반드시 버선을 端正하게 신어야 한다. 바지속에 손을 넣지 말라.」²²⁾ 즉 걸음걸이는 신중하고 엄숙해야 되며 앉고 서는것은 放恣하고 解弛해서는 안되며 항상 端正하고 조심성있는 姿勢를 지녀야함을 가르치고 있다. 「禮記」²³⁾에도 「앉는 것은 시동씨처럼 하고, 서는 것을 齊戒할 때처럼 한다.」 「몸가짐과 動作은 게으르고 解弛하지 말아야 한다. 걸어다닐 때에는 거만한 姿勢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父母 媿父母계서는 곳에 있을때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며 돌고 돌아서는 때에는 몸을 굽히고 떠는 것을 法度에 맞게 해야한다. 하품하고 기지개켜고, 한쪽다리에만 의지하며, 몸을 기울게 서며, 비스듬히 걸음으로 보는 일들을 하지 않으며……」²⁴⁾ 「어른을 모시고 앉을 때에는 신을 신고 마루에 오르지 않으며, 신을 벗는 때에는 섬들에 바로 놓아두지 못한다. 신을 신을 때에는 꿇어앉아서 신을 들고 섬들걸음으로 물러나서 신는다.」²⁵⁾하여 어른

앞에서는 恭敬하는 마음으로 節度에 맞는 行動과 흐트러짐 없는 精神姿勢를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다.

「士小節」²⁸⁾에 「울곡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칠때 삼가 해야할 항목중 두손을 端正하지 못하게 마주잡거나 옷소매를 풀어헤치고 한다리에 의지해 기대서는 일」이라 하여 行動과 옷매무새는 함께 端正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가르침은 어릴때부터 敎育되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는 句節이다.

「諺解內訓」²⁷⁾ 「士小節」²⁸⁾ 「小學」²⁹⁾ 「禮記」³⁰⁾에 「남의 화장이 질다느니 엷다느니 명하지 말고, 또 남의 修飾이나 衣服간의 高下를 묻지말고 또 나무라지도 말며 귀에 대고 소근거리거나 눈을 흘겨보지도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좋은 말을 타거나 새로운 옷을 입거든 이리저리 돌아다보며 자랑하는 態度를 짓지말라.」³¹⁾고 하여 남의 것을 헐뜯는 行動과 자랑하는 行動을 삼가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欲심이 많은 법이니 欲心を 낼때마다 禁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무릇 남의 衣服과 器物등 좋은 物件을 보고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헐뜯지도 말고, 훔치지도 말고, 빼앗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남의 것보다 못한 것을 恨歎하지도 말게 하라.」³²⁾하여 衣服에 關係된 各種 規範을 어릴때부터 이와같이 敎育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句節이다.

「尤庵先生戒女書」³³⁾에 「분명한 얼굴모습 뿐만아니라 衣服도 밖의 사람이 보이게 하지말고...」 「士小節」³⁴⁾에도 「밖에 나갈 때는 얼굴을 단장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는 몸가짐을 廢하지 않고」 「연지와 분을 질게 바르면 塑鬼와 무엇이 다르랴?」하여 은밀히 감추는듯한 貞淑한 姿勢를 말한 것으로 「貞淑이 아니면 어떻게 몸을 지키며...」³⁵⁾라고 하였다. 그리고 「계집종이 여름에 옷을 벗거나, 걸터앉거나, 혹은 상스런말을 하거든 호되게 꾸짖어서 閨門안이 숙연하게 해야한다.」³⁷⁾ 즉 종이라 하더라도 貞淑한 姿勢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는 것으로 身分에 구별없이 貞淑함을 重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女四書」³⁷⁾에 「맑고, 고요하고, 다스롭하며, 절개를 지키며 바르게 처신하고, 行動하는때는 부끄러움을 지니며,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때는 法도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같은 行動樣式위에 衣服을 입혔을때 아름답다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君子는 行動學止에 있어서 溫雅하고 皎潔하며 精敏하고 寬博해야 한다.」³⁸⁾고 하였다.

이상에서 衣生活는 마음과 行動과 衣服이 三位一體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態 度

「禮記」³⁹⁾ 「小學」⁴⁰⁾에 「君子의 얼굴은 여유가 있고 침착하지만 尊敬해야할 사람을 보면 곧 恭敬하여 조심하는 態度를 짓는다. 발의 動作은 무거운듯이 하고 손의 모양은 恭頌하게 하며, 눈의 動作은 端正하게 하고, 입은 함부로 움직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낼때에는 고요히 하고, 머리는 곧게 가지며, 호흡은 整齊하여 엄숙하게 하고, 서는 모습은 반듯하고 의젓하게 가겨 바르게 서며, 낮빛은 莊重하게 가진다.」라고 하여 九容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小學」에 「道가운데서 君子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세가지 있다. 얼굴모습을 움직여서 自身的 表情을 나타낼 때에는 거칠고 怠慢한 態度를 짓지 말아야 하며, 얼굴빛을 端正하게 하여 鄭重한 態度를 지을 때에는 속마음부터 信實하게 하여야하고 言語, 聲氣에는 卑陋하고 事理에 어긋나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고 「諺解內訓」⁴²⁾에도 「怠慢하고 邪僻한 기운을 몸에 두지 아니하며 귀와 눈과 코와 입과 마음과 지혜와 온갖 몸의 바탕들을 모두 順하고 바르게 따르도록 하여 그것으로써 義를 行하는 것이다.」하여 마음과 온갖 몸의 바탕 즉 九容을 바르게 갖춘 다음에 行함이 있으면 그것이 곧 義를 行하는 것임을 示瞭하고 있다.

이상 態度 또한 마음에서부터 整齊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衣服은 그 취려야 할 態度에 맞게 입혀져 行爲가 이루어질 때 完全함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4. 端正한 衣生活

「女四書」⁴³⁾에 「무릇 女子됨에 있어서는 먼저 몸을 세우는 것을 배울 것이요, 몸을 세우는 법은 오직 端正하고 清潔하고 순수하고 바른것을 지켜 힘써 할지니 端正하고 清潔하면 몸이 깨끗하며...」 또한 「婦人의 德에는 몸을 端正하게 하는 것보다 큰것이 없으며 몸을 端正히 하는 요점은 警戒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삼가하고 두려워하여 방탕함을 警戒하여 매양 規律와 法도를 두며, 은미한 가운데 게으르지 아니하며 밝게 빛나는 가운데서도 驕慢하지 아니하며 行하기를 精誠으로써 하고...」⁴⁴⁾ 몸을 端正히 함도 貞淑한 姿勢에서 비롯되며 항상 삼가하고 警戒하며 게으르지 않는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다.

「士小節」⁴⁵⁾에 「더러운 옷을 빨거든 은벽한 곳에 말리라. 이불, 베개, 요, 요강은 보로 덮어서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수건과 빗집도 은벽한 곳에 두며...」라 하여 이러한 器物까지도 自己의 피부 일부로

여겨서 은백한 곳에 두는 그들의 조심성과 정숙성을 알 수 있는 句節이다. 그리고 「婦人是 端正하고 精潔함을 貴히 여기는 것이요 男便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화장을 하고 고운 服裝을 하는 者는 요사스런 婦人이요 머리털이 엉클어지고 얼굴에 때가 있는 者는 게으른 女子다.」⁴⁶⁾라고 하였는데 「처사 유형원은 이렇게 말했다. 道에 뜻을 두고도 제대로 잘 확립하지 못하는 것은 뜻이 기질로해서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衣冠을 바르게 쓰고 態度를 오직하게 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고...」⁴⁷⁾라고 하였다. 또한 「女四書」⁴⁸⁾와 「禮記」⁴⁹⁾등에도 부지런하여야 새벽녘에 일어나 몸을 端正히 하고 하루일과를 시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士小節」⁵⁰⁾에는 「婦인이 몸매를 端正하게 차리지 않고서는 감히 媿父母를 빚지 못한다.」 하였는데 端正한 차림새는 곧 어른에 대한 恭敬하는 마음의 표시이며 禮의 시작인 것으로서 端正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尤庵先生戒女書」⁵¹⁾에 「子息을 배었을때도 잡된 음식 먹지 말고 기우러진 자리에 눕지 말고 몸을 端正히 가지면 子息을 낳으면 自然 端正한 子息이 태어나느니라」라 하여 端正한 生活이 곧 胎教에도 중요한 것임을 示唆하고 있다.

「士小節」⁵²⁾에 「君子가 거울을 보고서 衣冠을 整齊하고 威儀를 가다듬는 것은 妖艷한 姿態를 꾸미기 위한 일이 아니다.」 하였고 또 「갓이 비록 해졌더라도 整齊해야하고 옷이 비록 襤褸하더라도 端正하게 입어야 한다. 禮記에 “君子는 옷만 갖추고 容儀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 한다.” 하였고 詩經에 “저사람은 옷이 몸에 어울리지 않도다.” 하였다.」⁵³⁾ 즉 衣服과 몸과 마음가짐이 서로 調和가 되도록 하라는 가르침이다.

이상에서 모든 곳에서의 禮는 端正한 차림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그러한 端正함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 衣服과 行動等에 나타나는 것이어야 비로소 端正한 차림새로 完成되어 지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5. 清潔한 衣生活

「女四書」⁵⁴⁾에 「女子의 容貌라는 것은 고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먼지와 때를 씻고 衣服이나 치장을 清潔히 하며 수시로 沐浴을 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士小節」⁵⁵⁾과 「尤庵先生戒女書」⁵⁶⁾에도 웬만한 병이 있을때에도 머리빗고 닦는 일을 폐지해서는 안되며 비록 가난하더라도 옷은 반드시 깨끗하게 빨아 입도록 가르치고 있다. 「閨房歌辭」⁵⁷⁾에도 「의복동결 불작시면 어찌 그리 준비하고, 칠년던한 아 니거든 서답쌀을 엮섯던가.」 「추립하는 저가장을 의복

남누 뉘치말고, 열발가락 닳난난이 보선지기 미리하 소, 드포장옷 드르온니 서답쌀니 요란하소.」라 하였고 「禮記」⁵⁸⁾에는 父母의 옷에 때가 끼거나 터지거나 찢어졌으면 안된다고 하여 항상 清潔한 衣生活로 남에게 책당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尤庵先生戒女書」⁵⁹⁾에 「婦인이 능한하면 한가지 飲食, 한가지 衣服을 하여도 봄적하니 부디淨하고 다시 淨하게 하여 남이 옷지 말게 하여라.」 하였다. 또한 「士小節」⁶⁰⁾에도 「男子의 옷을 빨았는데 때가 아직 남아있고 꿰맨곳이 터지고 풀썩거기가 붙어있고, 다리미불에 구멍이 나고, 구겨지거나 얼룩지고 넓고 좁음이 척도가 없는 것은 모두 婦人의 책임이다. 이상의 일은 奢侈를 目的으로 함이 아니라 곧 功力을 들이게 하려는 것이다. 실을 뽑고 솜을 타고 옷을 다리고 비단을 마전하는 일은 비록 몸종이 있더라도 손수 익혀야 한다.」고 했다.

「閨房歌辭」⁶¹⁾에 「저웃갖은 이규중에 등잔을 비겨안자, 인도가워 차즈놋고 증침세침 골나니야, 시처보고 척슈보아 아주헛기 어렵더라, 줄저고리 상첨박아 도포 짓고 보선기여, 서울출립 향중출립니일갈지 모리갈지, 부지불자 총탕중에 선문업시 찬난의복.」 한울한을 精誠으로 짜고 다듬으며 미리 준비해 두는 그들의 마음에서 우리의 멋은 여유있고 품위있게 完成되어 갔으리라 생각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특히 白衣를 즐겨입음으로써 清潔感을 더욱 즐겼다고 보며 그 清潔함에는 外的인것뿐만 아니라 內的인 清潔로 우리民族의 民族性과도 關係가 깊다고 본다.

6. 儉朴한 衣生活

「閨房歌辭」⁶²⁾에 「곡백이 만흔나만 몸치장 헛지말고, 혼의복 기워입고...」 「論語」⁶³⁾에도 「奢侈하면 분수에 넘치게 되고 지나치게 儉約하면 固陋하여지기 쉽다. 그러니 분수에 넘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固陋하여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리고 「女四書」⁶⁴⁾에 「분수에 지나치게 奢侈함은 德을 발한다.」 하였고 「士小節」⁶⁵⁾에도 自身의 才學에 맞게 生活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儉素한 生活은 어릴때부터 生活化되어져야 한다고 「閨房歌辭」⁶⁶⁾ 「禮記」⁶⁷⁾등에 언급하고 있다.

이상 儉朴한 衣生活는 시대에 변함없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7. 場所와 環境에 어울리는 衣生活

「士小節」⁶⁸⁾에 「여름에 슬몹을 입은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덥더라도 덥다고 말하지 말고, 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춥다고 말하지 말며…」라고 하여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禮記」⁶⁹⁾에 「갓옷에 속옷을 입는것은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함이니 조상할 때에 갓옷만 입는것은 裝飾을 다하지 않기 위함이고, 임금이 있을때 속옷을 입는것은 裝飾을 다하는 것이다.」고 하여 때와 場所를 고려하여 衣服을 着用하라고 하였는데 「士小節」⁷⁰⁾에도 喪事와 慶事에 맞는 衣生活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閨房歌辭」⁷¹⁾ 「尤庵先生戒女書」⁷²⁾ 「論語」⁷³⁾에도 祭祀를 당하면 그 슬픔으로 해서 色옷을 입지 않으며 또한 精誠으로 衣服과 몸과 모든 祭物을 淨潔하게 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父母가 病患중일 때도 근심하는 마음으로 꾸밈을 廢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⁷⁴⁾.

「士小節」⁷⁵⁾에 「과부들의 옷차림은 素服을 입는다는 평계로 청초한 옷을 입으니 이것이 어찌 미망인이라 일컫는 의의이겠는가.」라고 하였는데 「禮記」⁷⁶⁾에도 自身의 處地와 身分에 알맞는 衣生活이어야함을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의 衣生活은 모든 곳에 調和를 이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環境과 때와 處地等에도 맞도록 衣生活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象徴의인 衣生活

「禮記」⁷⁷⁾에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함이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形而上學的인 哲學的인 概念인 것이다.

「素朴한 것을 貴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지극히 恭敬하는 곳에서 文飾하지 않는다.」⁷⁸⁾ 하였는데 「三國志」⁷⁹⁾ 扶餘條에 보면 「居喪에는 男女가 다 純白色의 衣服을 입고 특히 婦人들은 珮環을 버리는등…」이라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옛부터 質素한 것으로서 恭敬과 精誠을 다하였다.

「禮記」⁸⁰⁾에 「아들된 者는 父母가 生存하였으면 갓과 옷을 純素하게 하지 않으며 弧子로서 아버지됨을 잊는 者는 갓과 옷을 彩色로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儒敎的인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白衣를 즐겨 입어 우리나라의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는 習俗이 병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衣服은 어떤 象徴的인 것으로 입는者의 內面的世界를 表出하는 場이 되고 있다.

9. 衣生活을 통한 人格陶冶

「士小節」⁸¹⁾ 「小學」⁸²⁾ 「論語」⁸³⁾에 「아무리 나쁜 衣服

일망정 조금도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하여 前進과 向上을 위해서는 惡衣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됨을 강조한 句節이다.

「女四書」⁸⁴⁾에 거처할때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은 奸惡함을 막기 위해서이며 또 行實을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함으로써 德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小學」⁸⁵⁾에는 君子가 佩玉소리와 수레를 타고 있을때 방울소리를 들으면서 잘못되고 偏僻된 마음을 경계하여 事物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가르쳤고 「禮記」⁸⁶⁾에는 深衣制度도 矩繩權衡에 應하여 規矩는 私 없는에서 취했고 繩은 公에서 權衡은 明明한에서 취했다고 하였는데 이렇듯 衣服構成까지도 마음의 淨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閨房歌辭」⁸⁷⁾에 「동절에 던포차서 버선을 정히지어, 동짓달 동지에 시부드닐게 드리던 그아니좋은손아.」 하였는데 「閨閣叢書」⁸⁸⁾에 보면 冬至에 陽氣를 받으면 사람에게 좋으므로 동짓날 버선을 지어 시어른께 孝道하였다는 句節이 있다. 또한 어린아기옷은 金玉과 繡錦으로 裝飾하지 않는다⁸⁹⁾고 하였는데 이렇듯 父母에 대한 孝道도 우주의 끝까지 빌리면서 다하려 하였으며 또한 子息에게는 우주속에 人間이 차지하는 福과 福이 절대량 있을 것이라 믿고 이를 평생동안 均배해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男女가 衣生活에서도 有別하여⁹⁰⁾ 陰陽의 理致에 順應하려 함을 볼 수 있다.

「閨房歌辭」⁹¹⁾에 「일찍로 갈나니여 등기와 갈나일고, 의복을 버낼져과 말업시 니여주고」 즉 貴하고 좋은 것이지만 나누어 주되 自己의 功績을 드러내지 않고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또 「士小節」⁹²⁾에 「갓끈이 끊어지고 옷이 찢어지더라도 한탄하거나 애석해 하지 말라.」 이 句節은 무슨 물건이든지 가득차면 변한다.⁹³⁾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영원히 머물게 할 수 없는 것으로 自然의 淨정에 順應하는 姿勢를 보여주고 있다.

「禮記」⁹⁴⁾에 君子는 容貌로 아름답게 하며 衣服으로 그德을 날리게 하며…」라고 하였는데 「論語」⁹⁵⁾에도 마음자세와 걸음으로 드러난 모습이 調和를 이루어야 되는 데 먼저 德을 갖춘다음에 그 위에 禮貌를 꾸미면 自然히 아름다움은 나오게 된다고 示唆하고 있고, 「女四書」⁹⁶⁾에도 德으로서 아름다움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衣服은 一次的인 몸을 가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人格陶冶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Ⅲ. 結 論

朝鮮時代의 日常的인 各種衣生活規範을 各文獻에서 拔萃하여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朝鮮時代의 衣生活規範은 儒敎의인 가르침에 根本을 두었음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우리 民族의 뿌리깊은 習俗 또한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衣生活은 마음과 行動과 衣服이 三位一體가 되어야 됨을 強調하고 있다.

3. 衣冠은 着用構成要素들을 다 갖추어 반드시 단정히 整齊해 입도록 하고 있다.

4. 衣冠은 環境과 周圍等에 調和가 되도록 着用해야 함이 나타났다.

5. 衣生活은 貞淑한 姿勢로서 걸음으로 드러내 보일려는 차림새보다는 잠주는 듯한 차림새에서 그참멋이 우러나옴이 나타났다.

따라서 結論的으로 朝鮮時代의 衣生活은 그 材料가 素하고 白하며 精하고 澁雅 端雅한 特性을 갖고 있으며 衣生活 또한 素朴하고 端雅하고 整齊하고 또한 內面과 外面의 調和로움 속에서 우리의 衣生活은 完成되어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參 考 文 獻

- 1) 燃藜室記述, 별집 제19권, 歷代典故.
- 2) 山海經箋疏, 山海經第九, 海外東經.
- 3) 閨房歌辭, 婦女敎訓歌.
- 4) 李德懋, 士小節, 士典一, 服食.
- 5) 禮記, 檀弓.
- 6) 上揭書, 禮器.
- 7) 李德懋, 士小節, 士典一, 服食. _____, 童規三, 動止.
- 8) 上揭書, 士典一, 服食.
- 9) 上揭書, 婦儀一, 動止.
- 10) 閨房歌辭, 福善禍淫歌. _____, 誠女歌.
- 11) 李德懋, 士小節, 士典一, 服食.
- 12) 上揭書, 士典一, 動止.
- 13) 論語, 學而.
- 14) 詩經.
- 15) 諺解內訓, 言行章.
- 16) 小學, 明倫篇, 明長幼之序.
- 17) 禮記, 曲禮.

- 18) 女四書, 女論語, 立身章.
- 19) 諺解內訓, 言行章.
- 20) 李德懋, 士小節, 士典一, 動止.
- 21) 上揭書, 婦儀一, 動止.
- 22) 上揭書, 童規三, 動止.
- 23) 禮記, 曲禮.
- 24) 上揭書, 內則.
- 25) 上揭書, 曲禮.
- 26) 李德懋, 士小節, 童規三, 動止.
- 27) 諺解內訓, 言行章.
- 28) 李德懋, 士小節, 童規一, 動止.
- 29) 小學, 敬身篇, 須臾緩之則.
- 30) 禮記, 少儀.
- 31) 李德懋, 士小節, 士典一, 動止.
- 32) 上揭書, 童規三, 事物.
- 33) 尤庵先生戒女書, 중요로운 警戒다.
- 34) 李德懋, 士小節, 童規一, 性行. _____, 婦儀一, 要飾.
- 35) 上揭書, 婦儀一.
- 36) 上揭書, 婦儀二, 事物.
- 37) 女四書, 女誠, 德行.
- 38) 李德懋, 士小節, 士典一, 動止.
- 39) 禮記, 玉藻.
- 40) 小學, 敬身篇, 須臾緩之則.
- 41) 上揭書, 敬身篇.
- 42) 諺解內訓, 言行章.
- 43) 女四書, 女論語, 立身章.
- 44) 上揭書, 內訓, 警戒章.
- 45) 李德懋, 士小節, 童規一, 服飾.
- 46) 上揭書.
- 47) 上揭書, 士典一, 動止.
- 48) 女四書, 女論語, 早起章.
- 49) 禮記, 內則.
- 50) 李德懋, 士小節, 婦儀一, 服飾.
- 51) 尤庵先生戒女書, 子息가르치는 道理다.
- 52) 李德懋, 士小節, 士典一, 動止.
- 53) 上揭書, 士典一, 服食.
- 54) 女四書, 女誠, 婦行.
- 55) 李德懋, 士小節, 婦儀一, 服飾.
- 56) 尤庵先生戒女書, 중요로운 警戒다.
- 57) 閨房歌辭, 희인가. _____, 행실교훈다.
- 58) 禮記, 內則.
- 59) 尤庵先生戒女書, 衣服服飾食하는 道理다.

- 60) 李德懋, 士小節, 婦儀一, 服飾.
- 61) 閨房歌辭, 여자탄식가.
- 62) 上揭書, 계여가.
- 63) 論語, 述而.
- 64) 女四書, 內訓, 節儉章.
- 65) 李德懋, 士小節, 士典五, 事物. _____, 婦儀一, 性行.
- 66) 閨房歌辭, 혼서가.
- 67) 禮記, 玉藻.
- 68) 李德懋, 士小節, 士典一, 言語.
- 69) 禮記, 玉藻.
- 70) 李德懋, 士小節, 婦儀一, 服飾.
- 71) 閨房歌辭, 계여가.
- 72) 尤庵先生戒女書, 祭祀반드는 道理라.
- 73) 論語, 泰伯.
- 74) 尤庵先生戒女書, 病患모시는 道理라. 小學, 明倫篇, 父子之親. 諺解內訓, 孝親章.
- 75) 李德懋, 士小節, 婦儀一, 服飾.
- 76) 禮記, 玉藻.
- 77) 上揭書.
- 78) 上揭書, 禮器.
- 79) 三國志, 魏書, 賈南傳, 扶餘條, 注魏略.
- 80) 禮記, 曲禮.
- 81) 李德懋, 士小節, 士典一, 服飾.
- 82) 小學, 敬身篇, 明或儀之則.
- 83) 論語, 里仁.
- 84) 女四書, 內訓, 修身章.
- 85) 小學, 敬身篇, 明或儀之則.
- 86) 禮記, 深衣.
- 87) 閨房歌辭, 혼민가.
- 88) 閨閣叢書.
- 89) 李德懋, 士小節, 婦儀一, 服飾.
- 90) 尤庵先生戒女書, 증요로운 警戒라. _____, 남편설기는 道理라. 閨房歌辭, 계여가 小學, 明倫篇, 明夫婦之別. 禮記, 曲禮.
- 91) 閨房歌辭, 계여가.
- 92) 李德懋, 士小節, 士典一, 動止.
- 93) 周易, 上經.
- 94) 禮記, 表記.
- 95) 論記, 堯日. _____, 雍也. _____, 八佾.
- 96) 女四書, 內訓, 母儀章.